

崔致遠 以前の 漢詩

李 九 義

〈 目 次 〉

- | | |
|-----------------|--------------|
| I. 문제 제기 | VI. '返俗謠' |
| II '人蔘讚'과 '詠孤石' | VII. '送童子下山' |
| III. '遺于仲文' | VIII. '憤怨詩' |
| IV. '太平頌' | IX. 散逸詩 |
| V. '往五天竺國傳'中 詩 | X. 마무리 |

I. 문제 제기

현재까지 한국 한시에 대한 연구는 최치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최치원보다 앞선 시대에 생존한 분들의 작품을 고찰한 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단지 몇 편의 논문이 나왔을 뿐이다.¹⁾ 또 기존의 논문 가운데는 실제로 생존한 작가가 아닌 사람의 작품을 다룬 경우도 있고, 또 한시가 아닌 漢譯詩나 漢譯歌, 또는 偈頌類와 같은 것을 한시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다. 이리하여 초창기의 한시를 이해하는 데 도리어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1) 池凌模, "新羅漢詩의 發展過程"(新羅文學의 新研究,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第7輯, 新羅文化宣揚會, 慶州市, 1986.2)

沈浩澤, "韓國漢詩史의 出發期에 대한 問題"(語文論集, 第23輯, 高麗大 國語國文學硏究會, 1982. 9)

——, "三國時代와 新羅中代의 漢詩에 對하여"(漢文學論集, 제2집, 檀國大學校 漢文學會, 1984. 11)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작자가 불명확하거나 한역시 또는 한역가라고 생각되는 작품들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작자가 명확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최치원 이전의 한시는 어떠한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최치원의 한시와는 어떠한 連繫를 맺고 있는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범위는 초기 한시의 생성에서부터 최치원 작품 이전까지가 될 것이다.

본고는 다음의 이유들에서 그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1) 한시의 발전상을 반드시 고찰해야 될 것이나, 자료의 부족으로 그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 (2) 기존의 연구가 드물게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리어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3) 기존의 논문들은 전·후기의 맥을 잇지 못했다는 점. (4) 막연한 선입관으로 작품을 고찰한 면도 있어 실제의 작품과는 그 연구가 거리감이 있다는 점. (5) 지금까지의 논의는 최치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그 연구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 따라서 최치원보다 앞선 분들의 작품을 연구함으로써 국문학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논의의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그러면 위의 목차의 순서에 따라 본고를 진행하기로 한다.

II. 「人蔘讚」, 「詠孤石」

1. 最初の 漢詩體 등장

먼저 作者未詳의 「人蔘讚」과 高句麗 定法師의 作品인 「詠孤石」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詩를 들기 전에 위의 두 작품에 대한 해설을 먼저 들어 보기로 한다. 한치윤의 <해동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²⁾

2) 韓致胤, 海東釋史, 卷四十七, 藝文志之六(서울: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7. 3. 下冊, p. 58)

① 고의별록에 이르기를, 인삼찬은 고려 사람이 지은 것이라 한다. 생각하건데, 고려는 곧 고구려이다.(古醫別錄, 曰 人蔘讚 高麗人作 案高麗郎 高句麗也)

② 고시기에 이르기를, 정법사는 고려사람이라 한다.(古詩紀曰 定法師, 高麗人也)

또 ②에 더하여 <大東詩選, 卷之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즉, “인고석은 정법사라는 고구려 승려가 일찌기 북주의 표법사와 더불어 노닐 때 지은 것이다(人孤石 定法師 高句僧 嘗入北周 與標法師從遊).” 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北周의 存立時期이다. 북주는 서기 557년부터 580년까지 존립했다. 물론 한치윤의 <해동역사>에는 「영고석」이라는 제목의 시 앞에 「인삼찬」을 두고 있어, 「영고석」보다 앞서 나온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자도 연대도 모두 불분명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그렇다고 단정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는 늦어도 6세기 후반에는 漢詩體가 유입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에 한시체가 들어 온 것은 唐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詩經體에서 古詩體로

이어서 위 두 수의 원문을 들어서 고찰하기로 한다.

① 三椽五葉
背陽向陰
欲來求我
楸樹相尋

② 廻石直生空
平湖四望通
巖根恒灑浪
樹杪鎮搖風
偃流還漬影

4 嶺南語文學(第18輯)

侵霞更上紅
獨我群峯外
孤秀白雲中

①과 ②는 그 형식이 서로 다르다. 즉, ①은 한 句가 4言으로 되어 있고 ②는 한 句가 5言으로 되어 있다. 또 ①은 4句로 한 수의 시를 이루었고, ②는 8句로 한 수의 시를 이루었다. 외형상으로 보면, ①은 詩經體요, ②는 古詩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②가 律詩도 될 수 있으나, ②가 만들어질 당시에 중국에서도 아직 律詩가 만들어지기 전이다. ②의 韻은 平聲 東韻으로 맞으나, 黏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설명 律詩가 生成된 뒤의 작품이라 해도 ②는 律詩가 아니다.

그러면 왜 詩經體가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었으며, 楚辭體는 왜 등장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자.

중국에서도 물론 시경체 -4言體-가 가장 먼저 생성되었다. 우리가 읽고 있는 詩經이나 書經은 주로 四言의 韻文으로 되어 있다. 시경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가집이라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또 시경은 西周 초인 B.C. 1100년 무렵부터 春秋 중엽인 B.C. 600년 무렵에 이르는 약 500년 사이에 지어진 시들을 모은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시경체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 등장한다고 해서 약 1000년이나 뒤진 시대에 지어진 작품이 詩經體를 가장 먼저 따왔으리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관념적이다. 막연한 추측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 보자.

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高句麗時代에 읽혀진 책들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中國歷史文獻에 포함된 東夷傳에서 具體的인 資料를 뽑으면 다음과 같다.

周書 北史：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

舊唐書：五經，史記，漢書，後漢書，三國志，春秋，玉篇，字統，字林，文選

위의 具體的인 史料에서 알 수 있듯이 高句麗에서 주로 읽힌 책들은 五經과 史書類, 그리고 語文學類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人蓼諫」이 詩經體인 四言體를 본 받았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위의 「詠孤石」이 楚辭體가 아닌 古詩體라는 것도 수긍이 간다. 위의 史料에서 보듯이 高句麗에서는 楚辭가 크게 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楚辭體에 영향을 받은 賦體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高句麗 民族의 기질로 보아도 楚辭體는 유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乙支文德의 「遺于仲文詩」를 논할 때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3. 情感爲主

「人蓼諫」이나 「詠孤石」, 이 두 수의 시는 純粹한 서정적 자아의 정감을 읊조리고 있다. 앞의 것은 詩經의 興體를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반에 興을 깔고 후반에 주지를 펴는 형식을 취했다. 「인삼찬」이나 「영고석」은 모두 無情的인 事物을 有情化하고 있다. 「인삼찬」은 인삼을 ‘나’라는 인간으로 의인화하여 詩的形狀의 생동감을 부여해 주고 있다. 또한 「인삼찬」은 생기있고 간결한 詩的描寫를 통해 정감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인삼찬」을 자세히 보면 순수한 정감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三極, 五葉이라 했으니, 여기서 주의할 詩語는 三과 五이다. 三은 무엇을 나타내며, 또 五는 무엇을 나타낼까? 글짜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석을 하면, 三은 干, 地, 人 또는 智, 仁, 勇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또 五는 五行 또는 五常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니 水, 木, 火, 土, 金과 智, 仁, 禮, 信, 義이다. 三才 또는 三極과 五行 또는 五常이 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陽을 등지고 陰을 향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즉,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고 혼란스럽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떠한가? “나를 진정으로 구하고자 오는 이들, 자작나무(무궁화)에서 날 찾으라.”하고 있다. 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三極과 五常이 있는 세계라 할 수 있다. 나를 혼란스런 세계에서 三極과 五常이 있는 질서 있는 세계

로 구해내 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檝樹에서 찾으라 한다. 檝樹는 자작나무도 되지만 무궁화나무도 된다. 어느 것이나 시들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무이다. 여기서 끊임없는 것은, 아니 끊임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三極과 五常이라 할 수 있다. 즉, 서정적 자아의 간단한 말 속에는, 현재의 사회상을 언급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서정적 자아의 희망, 즉 질서있는 세계로의 복귀를 말해 주고 있다.

내용면에서 볼 때, 이 시는 당시의 혼란한 사회상을 읊조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詠孤石」은 호수 가에 우뚝 선 바위를 有情化해서 서정적 자아의 정회를 읊조리고 있다. 맑은 호수와 하늘 높이 솟은 바위와 나무, 노을과 구름 등이 서로 잘 조화되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이 시는 수사법을 사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진솔하게 노래하고 있다. 이 시는 자연을 노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정적 자아의 장엄한 기상을 우뚝 솟은 바위들에 건주어 사실적으로 읊조리고 있다.

다음은 을지문덕의 「遺于仲文」이라는 시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Ⅲ. 「遺于仲文」

이 시는 嬰陽王 23년(서기 612)에 隋나라 장수 于仲文이 평양 근처까지 쳐들어 오자 乙支文德이 于仲文에게 지어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된 작품이다. 서기 612년 여름에 3십만에 이르는 수나라 병사가 고구려에 침입했을 때, 을지문덕 장군이 적을 유인하는 전술로 시를 보내어 상대방이 안심하고 후퇴하도록 한 뒤 섬멸전을 벌였던 것이다. 먼저 그 시의 원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既高, 知足顯云止,³⁾

위의 시에 대해 이규보는 “구법이 기고하며, 화려하게 다듬고 꾸미는 버릇이 없으니, 어찌 후세에 졸렬한 글을 짓는 사람들이 미칠 수가 있겠는가(句法奇古, 無綺麗雕飾之習, 豈後世委靡者 所可企及哉)?”⁴⁾라고 했다. 천문과 지리에 통달한 于仲文이 이미 전쟁에도 이겼으니 그만 족한 줄을 알고 돌아가라는 것이다. 즉, 상대방을 높이 치켜 올리고 있으나, 사실은 치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비꼬는 것이다. 족한 줄을 알면 그만 그치라(돌아가라) 했으니,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라는 말도 된다. 나아갈 때는 나아가고, 그칠 때는 그치는 것(時行則行, 時止則止)이 바로 ‘止’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욕심을 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시는 앞의 「詠孤石」과 더불어 五言古詩로서 서정적 자아의 높은 기개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고구려 사람들의 기상을 말하는 것이 된다.

많지 않은 3수의 시를 고찰해 봤다. 보다 많은 고구려 시대의 작품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유감이다. 3수의 시를 통해서 볼 때 고구려 시대에는 시경의 4언체에서 곧 바로 5언 고시체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민족의 씩씩한 기상이나, 또 그들의 수학 과목을 봐도 초사체가 유행할 수 없었고, 또 유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만큼 부드러운 남방문학인 초사체는 뒷날 신라 시대에 가서야 유행될 수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뒷 章에서 다시 논의가 될 것이다.

3) 韓致齋의 앞의 책, 같은 곳.

4) 李奎報, 「白雲小說」(洪萬宗 撰, 詩話叢林, 서울: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73, pp. 10-11)

IV. 「太平頌」

이 시는 唐나라 永徽(唐, 高宗, 서기 650년) 원년 진덕여왕 4년에 지은 것이다. 이때는 신라가 백제를 大破하고 난 뒤 法闕을 당나라에 보내서 이 시를 당나라 高宗에게 바치게 했다 한다. 먼저 원문을 들고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大唐開鴻業, 巍巍皇猷昌, 止戈戎衣定,
修文繼百王, 統天崇雨施, 理物體含章,
深仁誥日月, 撫運邁時康, 幡旗何赫赫,
鉦鼓何鏗鏘, 外夷違命者, 剪覆被天殃,
淳風凝幽顯, 遐邇競呈詳, 四時和玉燭,
七晷巡萬方, 維嶽降帝輔, 維帝任忠良,
五三成一德, 昭我唐家皇,

이 시에 대해서는 「白雲小說」, 「小華詩評」, 「西浦漫筆」, 高柄의 「唐詩品彙」, 陳眉公의 「古今女史」나 後代의 여러 한문학사에서 평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金台俊님은 “遐邦美人이 美麗한 句로써 美絹 속에 아름답게 짜서 드리니 이제 아무리 唐太宗의 鐵腸인들 昧惑되지 아니하라? 이것이 新羅의 外交術이었다. 詩風은 雅麗하여 初唐의 風致가 있으며 朝鮮漢詩도 이에 이르러 體裁가 구비하였음을 알겠다.”⁵⁾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徐首生 教授는 “이 太平頌이 全篇이 典雅하고 辭氣가 婉轉하여 그 속에 和氣藹藹한 太平의 瑞雲이 감돌고, 奇羅한 마음의 鄉愁를 느끼게 한다. 이 佳麗한美辭를 萬里 밖 異域美人이 비단 속에 아름답게 짜서 唐高宗에게 드렸으니 어이 心境變化가 없을쏘냐? 이처럼 찬란한 詩詞는 阿附文學으로써 唐帝를 호립이 當時 古新羅의 外交術策이었다.”⁶⁾

5) 金台俊, 朝鮮漢文學史(京城, 朝鮮語文學會, 1933), p. 17.

위 두 분의 견해에서, 먼저 金台俊님은 이 太平詩를 唐太宗에게 썼다 하나, 이는 唐太宗이 아니라 唐高宗이다. 唐太宗은 그 한 해 전인 서기 649년에沒기 때문이다. 또 위의 두 분은 詩風이 雅麗, 典雅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形式과 內容面에서 법도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형식면 에 대해서는 池俊模님이 論한 바가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 詩는 平仄規則이 없으니, 古詩이다. 그러나 非押韻句의 脚部下字가 平韻에 대한 仄字입에 주의할 만하다.

② 古詩에서는 押韻句가 4句 以上일 때는 任意로 換韻句를 지니면서도 一韻到底格 곧 끝까지 同韻押韻을 한 것은 古詩中 新形이라 할 수 있다.⁷⁾

이를 보면 形式面에서는 古詩體이다. 그것도 四言으로 詩經體에 해당 된다. 즉, 앞에서 고찰한 고구려 시대의 작품인 「人蓼讚」과 같은 맥락 에서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위 시의 風格은 形式과 內容이 法度에 딱 맞는 典雅보다는 형식이 아름다우면서도 내용이 우아한 雅麗라는 말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위의 시는 外交詩에 해당된다. 그 가운데서도 弱者(國)가 強者(國)에 올리는 外交詩이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상대방을 칭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시를 올렸을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얻어 보기로 한다. 먼저 다음 기록을 보기로 하자.

眞德王 元年 二月唐太宗遣使持節追贈前王爲光祿大夫, 册命王爲桂國封樂浪郡王 秋七月遣使入唐 謝恩改元太和(三國史記, 卷五)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眞德女王이 獨自의인 年號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眞德女王代에 이르러서는 唐의 外交의인 干涉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라의 독자적인 연호 사용에 대한 당의 간섭이 있게 된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던 신라

6) 徐首生, 高麗朝漢文學研究(大邱: 螢雪出版社, 1971), p. 473.

7) 池俊模, 앞의 논문, pp. 220-221.

의 자주의식이 점차 희석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이 시점에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太平頌이 나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 물론 太平頌은 詩經의 形式을 취하면서 신라 시대에 생성된 현존하는 최초의 시라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V. 「往五天竺國傳」中の 詩

慧超는 聖德王(在位 702~736)代の 승려로 30세를 전후하여 당나라로 건너가 南印度의 密敎僧 全剛智를 師事하다가 결의하고 南海로부터 印度에 이르렀다. 인도에 이르러서는 五天竺의 聖地를 遍歷하고, 그 여행하는 가운데 견문을 수록한 것이 바로 「往五天竺國傳」인데, 그 가운데에 다섯 수의 시가 전한다. 먼저 그 원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不虛菩提遠, 焉將鹿苑遙
只愁懸路險, 非意業風飄
八塔難誠堅, 奈著經劫燒
何其人願滿, 目覩在今朝
- (2) 月夜瞻鄉路, 浮雲颯颯歸
緘書奈去便, 不急不聽回
我國天岸北, 他邦地角西,
日南無有雁, 誰爲向林飛,
- (3) 故里燈無主, 他方寶樹摧
神靈去何處, 玉兒已成灰
憶想哀情切, 悲君願不隨
孰知鄉國路, 空見白雲歸
- (4) 君恨西蕃遠, 余嗟東路長
道荒宏雪嶺, 險澗賊途倡
鳥飛驚峭巖, 人去難偏樑
平生不捫淚, 今日灑千行

- (5) 冷雪牽氷合, 寒風擘地烈
 巨海凍瓊壇, 江河浚崖嶒
 龍門絕瀑布, 井口盤蛇結
 伴火上絃歌, 焉能渡播密

위의 시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고찰한 바 있다.⁸⁾ 따라서 여기서는 자세한 논의는 피하기로 한다.

위의 시들에 대해서 소략하게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의 시는 喜悅을 느끼는 가운데 지어진 것이다. 자기 자신이 갈망하던 소원을 성취한 뒤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그리고 ②와 ⑤의 시는 자연을 완상하면서, 그 자연에서 자신을 관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③과 ④의 시는 물론 작가 자신의 심회를 읊고 있다. 그러나 그 정감을 느끼게 된 동기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서정적 자아-여기서 작자와 동일시하면 곧 혜초 자신-의 마음이 動한 것이다.

①을 제외하면 나머지 네 수의 시는 서정적자아의 마음이 밝은 데서 읊조려진 것이 아니다. 得道の 喜悅을 지나서, 旅愁에 젖은 상태에서 서事物이나 事件을 접할 때는 그 느끼는 깊이가 더욱 심화된다. 인간의 五官을 통하여 받아들여지는 인식작용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는 작자가 수도승이며, 또 나그네라는 점에서 그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깊어져 있다. 불교의 교리가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부처님의 손의 형상을 봐도 알 수 있다. 부처님의 손은 卍 卐의 형상이다. 또 불경에 부정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라는 신세도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많이 숨어 있다. 외부와 화합되기 보다는 격리되고 있는 것이다.

혜초의 시는 古詩에서 近體詩로 넘어 가는 과도기적인 시체라 할 수 있다. 이는 혜초가 黏이나 韻은 비교적 正格으로 하면서도 對偶를 잘 하지 않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혜초의 개인적인 차

8) 拙藁, “慧超詩考”(嶺南語文學, 第17輯, 嶺南語文學會 1990. 9).

원에서가 아니라 사회·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 古詩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회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혜초의 시는 ① 詩語面에서는 佛家の 용어를 쓴 곳이 많다. 그 이유는 혜초 자신이 승려였고, 또 현재 그가 수행하고 있는 것은 성지순례이기 때문이다. ② 語氣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 그것은 작자 자신의 내·외적인 요인이 모두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작자 자신의 氣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데서 연유한 것이고, 또 시대·사회의 文風에서도 起因이 된 것이다. ③ 내용면에서 보면, 승려의 작품이지만 인간적인 면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즉, 求道와 人情 가운데 人情이 우위에 있다 하겠다.

VI. 「返俗謠」

薛瑤의 「返俗謠」는 우리 한문학사상에 있어서 최초의 여류 시라는 데에 그 첫째 의의가 있다. 물론, 고조선 때의 「公無渡河歌」도 여류 작품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漢譯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설요의 「반속요」는 그렇지 않다. 한역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창작한 것이다. 또 하나의 의의는 우리 시문학사에 최초로 楚辭體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방의 시경체가 아니라 남방 문학인 초사체가 등장함에 따라 그 문학적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 한 수의 작품에 지나지 않으나, 先代에 없었던 장르가 나타난 것이 특이하다. 그러면 원시를 들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化雲心兮思淑貞，洞寂寞兮不見人
瑤草芳兮思芬熹，將奈何兮青春。

이 작품의 형식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된 바 있는데, 그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⁹⁾

9) 池俊模, 앞의 논문 같은 곳.

- ① 이 작품은 楚辭의 系이다.
- ② 虛辭을 전후하여 각기 三言이 排列되어 있다.
- ③ 이 작품은 詩라기보다는 辭이며, 이런 種類의 작품으로는 후일 景哀王 (在位 924~927)의 「繁花曲」이 있다. 그러나 辭로 分類하지 않는다면, 七言으로 본다.

위에서 먼저 ①과 ②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①을 보면 이 작품은 楚辭系라 한다. 楚辭系라면 이 작품은 賦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賦의 가장 모체가 되는 것이 초사이기 때문이다. ②로 보면, 이 작품은 전후 三言이 배열되어 있다고 한다. 이 구식은 바로 「□□□兮□□□」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구식은 楚辭 가운데에서 〈九歌〉에만 보인다. 〈九歌〉의 「山鬼」와 「國殤」이 그런 구식을 쓰고 있고, 「湘夫人」, 「大司命」·「小司命」·「東君」·「河伯」 등에도 몇 구가 보인다.

「九歌」는 초나라 郢邑과 沅湘 사이의 민간에서 여러 신들을 제사 지낼 때 부르던 노래인데, 그 노래가 鄙陋해서 崑崙이 개작한 것이라 한다.¹⁰⁾

설요의 「반속요」는 九歌와 같은 형식은 취했을망정 그 내용은 다르다. 설요는 그의 아버지가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전사하자, 獨女인 그녀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산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다가 환속할 때 읊은 것이라 한다. 즉, 이 「반속요」는 〈구가〉처럼 무격적인내용은 보이지 않고 人間에로의 복귀를 갈망하고 있다.

구름처럼 마음을 비웠다는 것은 私欲이 없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 맞게 洞里는 고요하여 보이는 사람이 없다. 자연의 虛 또는 空과 人間의 虛 또는 空이 서로 부합된다. 그러나 서정적 자아는 어떤가? 꽃다운 풀들이 향기를 더하지만, 꽃다운 나이인 자신은 어찌할꼬 하고 있다. 비록 모든 것을 초탈하고자 入山을 했으나, 너무나 적막하여 견디기가 힘든다는 것이다. 한참 생기가 도는 나이에, 또 꽃다운 풀들이 향기를 발하

10) 洪興祖 撰, 楚辭補註, (台變: 藝文印書館印行, 民國六十三年十月四版), p. 98.

는 때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시는 枯骨스런 宗教의 思念을 읊어서 자신의 信心을 돈독히 하려는 信仰方便인 것이 아니다. 이 시는 바로 피끓는 人間에로의 복귀를 갈망하는 심정을 극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¹¹⁾

아 물론 이 시는 고구려 시인들의 작품에서는 보기 드문 楚辭體인 賦의 형식을 빌어 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文物의 受容面에서 그 만큼 다양해졌으며, 또 그만큼 後代에까지 내려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楚辭는 시경 보다는 훨씬 뒤에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강한 서정성을 담고 있어서 수사에 바탕을 둔 문학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사가 후세 문학에 미친 영향은 「시경」에 버금갈 정도이기 때문이다.

VII. 「送童子下山」

至德(景德王 15~16年, 서기 756~757) 初에 航海하여 九華山 아래에서 거처했다는 신라의 왕자 金地藏은 「送童子下山」이라는 시를 지었다. 그는 이 시를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空門寂寞汝思家, 禮別雲房下九華.
愛向竹欄騎竹馬, 懶於金地聚金沙.
添瓶澗屋休招月, 烹茗巖中罷弄花.
好去不須頻下淚, 老僧相伴有煙霞.

먼저 형식면에서 보면, 위의 시는 우리 문학사에서 현전하는 최초의 七言詩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초의 시형태가 시경체였으며, 그 다음이 오언시(古詩)체였다. 그리고 설요의 시는 -詩가 아니라 謠- 楚辭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이 「송동자하산」은 온전한 七言律詩의 形態를

11)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대구: 螢雪出版社 1981. 2) 312.

지니고 있어 後代 작품들과 형식면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있다. 내용 또한 스님의 작품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별의 정이 老僧과 童子 사이에 넘치고 있는데, 이 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首聯, 頷聯과 頸聯, 그리고 尾聯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首聯은 童子가 山을 떠나기 전 老僧을 찾아서 하직인사를 하는 것을 읊고 있다. 그리고 頷聯과 頸聯은 속세에서 동자가 노닐던 모습을 읊조리면서, 동자가 하산을 하는 이유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尾聯은 동자가 떠나 감을 배웅하는 노승의 말을 묘사하고 있다. 즉, 위의 시는 동자가 떠나기 전에 노승께 올리는 인사 → 동자가 떠나는 이유, 속세의 놀이 → 동자가 노승과 이별함으로써 이어진다.

적막한 절간이니, 어린 나이의 동자에겐 집 생각이 난다. 그러나 노승께 절을 하고 구화산을 내려간다. 집생각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竹馬타기, 金도래 모우기, 시냇물로 瓶채우고, 달 부르던 일, 그리고 茶 달이는 술 가에서 장난하던 일인 것이다. 비록 집 생각이 나서 산을 내려 가지만, 동자는 노승과의 정을 끊기 어려워 눈물을 짓는다. 그만큼 동자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승은 어떠한가? 노승은 동자를 보내면서도 태연한 채 한다. 비록 산 속에 홀로 있지만, 벗을 할 자연이 있으니까. 그만큼 노승은 속세의 인연과는 단절을 했다는 말이 된다. 만나고 헤어짐이 모두 부질없는 것이니까. 세속을 달관한 노승과 아직 세속을 벗어나지 못한 동자가 서로 자신들의 심회를 읊조림으로써 서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어떠한 신앙을 초탈한 모습 - 인간적인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다음은 王巨仁의 「憤怨詩」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VIII. 「憤怨詩」

「憤怨詩」는 王巨仁이라는 사람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¹²⁾에 전하는데, 두 곳의 작품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王巨仁이 이 작품을 지은 동기는 다음과 같이 〈三國史記〉에 전한다. 즉, 진성여왕 2년(888)의 일인데, 왕은 평소 角干 魏弘과 더불어 서로 통정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서는 떳떳이 그를 宮內로 불러 일을 보게 했으며, 왕은 그에게 命하여 大矩和尚과 더불어 鄉歌를 수집케 했는데, 이를 「三代目」이라 한다. 角干魏弘이 죽자 시호를 惠成大王이라 했다. 그 뒤에 왕은 남 몰래 少年美丈夫 두 세 명을 궁중에 불러 음란한 짓을 했으며, 또 그들에게 요직을 주어 국정을 맡기니, 이로 인하여 아첨하는 자들이 뜻을 펴고 뇌물이 公行하고 상벌이 불공평하고 기강이 무너졌다. 이때에 한 無名人이 時政을 비방하는 글을 써서 조정의 큰길 앞에 걸어 놓았다. 왕은 사람을 시켜 그렇게 한 사람을 찾게 하였으나 찾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아뢰기를 “이는 반드시 문인으로서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한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大耶州(陝川) 隱者 巨仁인가 합니다.”하여 왕은 곧 巨仁을 잡아 들여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하니, 巨仁이 분하고 원통함을 獄壁에다

于公慟哭三年早，鄒衍含悲五月霜，
今我幽愁還似古，皇天無語但蒼蒼，

이라는 시를 써붙였다. 그랬더니 그 날밤에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끼고 천지가 진동하게 천둥이 치고 우박이 쏟아 졌다. 그리하여 王은 크게

12) 〈三國遺事〉 卷二，紀異第二眞聖女大王條에 실려 있는데 원문은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은 비슷하기에 여기서는 원문만 소개한다. 원문은 “燕丹泣血虹穿日，鄒衍含悲夏落霜，今我失途還似舊，黃天何事不垂祥”이다.

두려워 하여 巨仁을 놓아 보냈다.¹³⁾

王巨仁의 시는 <東文選>에는 없다. 그러나 <三國遺事>, <海東釋史>, <東國輿地勝覽>, <大東詩選> 등에 두루 나타난다. 巨仁이 陀羅尼 隱語를 路上에 投書하여 時政을 비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宮中에서 巨仁을 지목할 만큼 그는 當代의 뛰어난 文人이었던 모양이고, 시정을 비판할 정도의 지식계층에 속했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그의 分원이 투옥에 말미암은 만이 아니고 문란한 지배계층에 대한 憤怨이었을지도 모른다.¹⁴⁾

于公이 통곡을 하니 三年동안 가뭄이 들었고, 5월에도 서리가 내렸다고 한다. 지금 이내 심정이 옛날 일과 비슷한데, 황천은 말없이 푸르기만 할 것인가? 하고 탄식을 했다. 여기서 우리는 于公과 鄒衍이 각각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于公은 漢나라 때의 사람이다. 그는 東海 鄒라는 고을 사람이며, 벼슬은 郡의 決曹·決獄을 맡은 獄吏였다. 그는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여 군에서는 산 사람의 사당까지 지었다 한다.¹⁵⁾ 구체적으로 于公이 무엇 때문에 통곡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나, 공명정대한 우공과 같은 사람이 모함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史記列傳>¹⁶⁾에는 騶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鄒衍과 동일한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騶衍에 대한 기록을 간단히 소개해 보기로 한다.

騶衍은 맹자보다 시대가 떨어진대. 추연은 군주들이 더욱 음란하고 사치해질 뿐, 덕을 숭상하여 <詩經> 「大雅」의 정신으로 자신을 가다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퍼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음양의 消息을 깊이 관찰하고 그 기이한 변화를 논하여 10여만 자에 달하는 「終始」·「大聖」篇을 지었다. 그의 말은 과장적이고 황당하였으나, 반드시 작은 사물을 경험적으로 논한 후, 그것으로 큰 사물을 무한대까

13)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聖王 2年條.

14) 尹榮玉, 앞의 책, p. 315.

15) <前漢書> 卷七十一「于定國傳」

16) <史記> 卷七十四「孟子, 荀卿列傳」第十四

지 유추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추연은 齊, 梁, 趙, 燕에 갔을 때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가 가는 나라마다 이처럼 존경과 우대를 받았으니, 공자가 陣, 蔡에서 굶주리고 맹자가 齊, 梁에서 곤경에 빠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伊尹은 술을 지고 숙수 노릇을 하였지만 湯을 勉勵하여 왕자가 되게 하였고, 百里奚는 수레 아래에서 소를 먹였으나 穆公이 그를 등용하여 패업을 이루었다. 이것은 먼저 뜻을 함한 뒤에 大道로 인도한 예이다. 추연의 말은 비록 정도를 벗어 났으나 그 또한 伊尹이나 百里奚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었을까?

아름든 于公이나 騶衍은 모두 公平正大함을 추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시에서는 서정적 자아—서정적 자아를 王巨仁 自身으로 보면 王巨仁 자신이 바로 于公이나 騶衍과 같이 끝은 사람이며, 사회의 비리를 없애고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이 모함을 받게 되어 옥에 갇혔고, 또 장차 死刑을 당하게 되었으니 원통하기 그지 없다. 그러한 원통함을 호소해서 자신을 구출해 줄 것을 하늘에 呪願하고 있다. 黃天은 말없이 푸르기만 할 것인가? 하고 있으니까.

이 시는 바로 크게는 支配層의 문란함에 대한 憤怨이요, 작게는 자신에 投獄에 대한 분원이다. 원통함을 표출하고 있으니 당연히 시어가 격앙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차차 후대로 넘어 오면서 四言이 五言이 되고 五言이 七言詩로 변모하고 있어서 점점 近體詩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王巨仁의 憤怨詩도 近體詩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X. 散逸詩

東國 시인의 작품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全唐詩>와 <千載佳句>에 수록되어 있다. <全唐詩>에 실려 있는 것과, <千載佳句>에 실려 있는 것들은 서로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먼저 두 책에 나오는 작품을 들면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최치원의 작품은 제외했다.

작자명 \ 책명	全唐詩(작품수)	千載佳句(작품수)
金立之	「秋日望月」, 「贈靑龍寺僧」, 「宿豐德寺」, 「贈僧」, 「秋夕」, 「早春」(6)	《全唐詩》작품+ 「峽山寺翫月」(7)
金雲卿	「奏樓仙」(1)	左 同
金可記	「題遊仙寺」(1)	左 同
溫達	×	「幽居」(1)
高元裕	「贈知貢舉陳商見池陽志」(1)	×
計	9	10

위에서 보면 <全唐詩>¹⁷⁾에는 김립지의 시가 6수, 김운경의 시가 1수, 김가기의 시가 1수, 그리고 발해 사람인 고원유의 시가 1수, 도합 9수의 시가 실려 있다. 전당시에는 총 20수의 한반도 사람의 시가 실려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왕거인, 진덕여왕, 설요의 시와 최치원의 시 8수가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이미 앞에서 다루었거나,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은 작품을 제외하면 4 사람의 시 9 수이다. 그리고 <千載佳句>를 보면 다른 것은 같으나 김립지의 시 「峽山寺翫月」이라는 시와 溫達의 시가 더 들어 있는 반면, 高元裕의 시가 빠져 있다. 여기서 두 책

17) <全唐詩>所載 新羅人의 시에 대해서는 柳晨俊, “羅唐詩人交流攷”(韓國漢文學研究 제5집, 韓國漢文學研究會, 1981. 9) p. 185에 실려 있는 제목을 참고로 했다.

가운데 〈千載佳句〉를 중심으로 하여 작품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金立之

김립지는 825년(헌덕왕 17년) 왕자 金昕을 따라 당나라에 들어가 宿衛하며 金允夫 등 열두 사람과 함께 국자감에서 공부했다.¹⁸⁾ 김립지의 시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園梅折甲迎春笑
庭草抽心待節芳(早春)¹⁹⁾

寒露已催鴻北至
火雲漸散月西流(秋夕, p. 657)

煙破樹頭驚宿鳥
露凝苔上暗流螢(秋夜望月, p. 667. 天象部)

山人見月寧思寢
更掬寒泉滿手霜(峽山寺翫月, 同上)

紺殿雨晴松色冷
禪林風起竹聲餘(贈青龍寺僧, p. 757. 釋氏部)

風過古殿香煙散
月到前林竹露清(宿豐德寺, 同上)

更有寒宵清淨境
曲江澄月對心虛(贈僧, p. 759, 同上)

2. 金雲卿

김운경은 일찌기 당나라에 가서 長慶(唐, 穆宗의 연호) 초년(서기 821

18) 〈三國史記〉新羅本記 第十, 憲德王 17年條.

19) 金子彦二郎著, 平安時代文學と白氏文集 — 句題和歌千載佳句研究篇 — (東京: 培風館, 昭和 30年 6月 25日), p. 675. 地理部, 山水條, 以下는 괄호 안에 페이지와 항목을 명시하기로 한다.

년)에 빈공과에 급제하였는데, 이름이 杜師禮의 榜에 올라 있다. 그가 본국으로 돌아 올 적에 당나라 사람 周翰이 시를 주기를 “禮樂夷風變, 衣冠漢制新”²⁰⁾이라 하였다. 김운경의 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秋月夜閑聞案曲,
金風吹落玉簫聲(奏樓仙, p. 730. 宴喜部).

3. 金可記

김가기는 출생년대는 불확실하나 憲安王 3年(859년)에 죽었다. 원성왕 때 당나라에 들어가 賓貢科에 급제, 학식이 높고 문장이 뛰어나 이름을 떨쳤다. 김가기는 김운경보다 뒤에 빈공과에 급제한 사람으로 신선의 方術을 잘하여 더욱 중국에 유명하였다 한다. 그가 일찌기 사신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 올 적에 章孝標가 시를 지어 이별하기를 “想把文章合夷樂, 蟠桃花下醉人夢”이라 하였다 한다.²⁶⁾ 김가기의 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波衝亂石長如雨
風激疎松鎮似秋(題遊仙寺, p. 709. 草木部).

4. 溫 達

온달의 작품이라고 나와 있는 「幽居」는 우리 나라 文獻이나 中國文獻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오직 〈千載佳句〉에만 실려 있어서 확실한 고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이 작품이 참으로 온달(?~590. 영양왕 1)의 작품이라면, 벌써 6세기 말에 고구려에서는 七言의 近體詩가 유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온달이 생존했을 때에는 아직 근체시가 생기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당나라가 건국된 해가 서기 618년이니, 온달이 생존했을 당시는 隋나라 이전이었다. 다만 여기서는 시를 소개만 해 둔다.

20) 安鼎福, 東史綱目, 第五上, 辛酉年 文聖王3年 秋七月條.

21) 安鼎福, 위의 책, 같은 곳.

三春種樹梅兼李

十月看書雪替螢(幽居, p. 689. 人事部)

5. 高元裕

고원유의 자는 景圭이며 그의 선조가 발해 사람으로 9세기 전반에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²²⁾하여 翰林學士와 吏部尙書를 역임했다고 하나, 정확한 生沒年代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여기서는 그의 시만을 소개한다.

中丞爲國拔賢才

寒俊欣逢藻鑑門(贈知貢舉陣商)

이상의 시들은 모두 산일된 것들이기에 구체적으로 분석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위의 작품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위의 시들이 모두 7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서로 對偶가 잘되고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김지장의 「송동자하산」이나 왕거인의 「분원시」도 7언으로 되어 있으며, 김지장의 시는 七言律詩의 형태로서, 현전하는 작품 가운데 최초의 7언의 완전한 율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신라에서는 8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근체시가 유행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근체시의 유행은 본국인 신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들 근체시의 유행은 당나라에 유학하여 공부한 새로운 지식인들에 의해서 신라로 유입되었다는 것을 위의 시들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많은 작품이 생성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현전하는 작품이 적은 몇몇 분들의 뒤를 이어 최치원에 이르면 신라에서는 한시 - 그것도 근체시의 전성기에 접어 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신라시대에 있어 근체시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은 신라 중기가 아니라 신라 후기라 할 것이다.

22) <全唐詩> 卷 795(台灣: 宏業書局, 1982. 9. 1. 再版 下冊) p. 8944. 下段.

X. 마 무 리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기로 한다.

(1) 한반도에서 최초의 한시작품은 고구려 시대의 「人蓼讚」이며 작자와 연대는 미상이다. 그러나 이 시는 신라 진덕여왕 때에 지었다는 「泰平頌」보다는 앞선 시대에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詠孤石」이 지어진 연대가 서기 557에서 580년 사이인데, 「인삼찬」은 「영고석」 앞에 있으며, 시의 형식이 4연으로 되어 있으며, 또 그 내용도 고구려 사회가 혼란할 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인삼찬」이나 「詠孤石」은 서정적 자아의 정감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시경체에서 5연체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 두 작품의 시는 사물을 유정화하여서 더욱 실감있게 하고 있다.

(3) 을지문덕의 「遺于仲文」시는 「인삼찬」, 「영고석」과 더불어 고구려 시대의 작품으로 고구려인들의 씩씩한 기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고구려의 것으로는 초사체의 시작품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는 고구려 민족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도 고구려에는 초사체가 정착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 시대에 읽혀진 책들 가운데에도 楚辭는 들어 있지 않다.

(4) 「태평송」은 5언 고시체로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지어진 시이다. 「태평송」이 지어질 당시에는 당의 간섭이 있었으며 신라의 자주주의식이 점차 희석되어 가던 시대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시가 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5) 「往五天竺國傳」에 실려 있는 다섯 수의 시는 고시에서 근체시로 이행되는 과도기적인 시로 수도승의 작품이지만 강한 인간의 서정을 노래하고 있다. 또 이 다섯 수의 시는 語氣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 그것은 작자의 내·외적인 요인으로 말마암은 것이다. 「왕오천축국전」에 실

려 있는 다섯 수의 시는 求道와 人情 가운데 인정이 우위에 있다.

(6) 「返俗謠」는 우리 한문학사상에 있어서 최초의 여류 시라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楚辭 가운데서도 九歌의 형식을 빌려 왔다. 그러나 이 설요의 「반속요」는 九歌처럼 무격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고 인간에로의 복귀를 갈망하고 있다. 이 초사체의 수용은 그만큼 문학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또한 강한 서정성을 담고 있어서 수사에 바탕을 둔 문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7) 「送童子下山」는 우리 문학사에 현전하는 최초의 七言律詩에서 후대의 작품들과 그 형식면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다. 즉 「송동자하산」은 우리 詩史에 있어 근체시가 본격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시사에서 근체시의 등장은 8세기 초반에서 중반 사이라 할 수 있다.

(8) 「憤怒詩」는 9세기 말의 작품으로, 작가는 자신의 투옥에 대한 분원이며 크게는 지배층의 문란함에 대한 분원이라 할 수 있다. 이 한 수의 시로써 당시 사회상의 일면을 짐작할 수 있다.

(9) 〈全唐詩〉와 〈千載佳句〉에 실려 있는 우리 나라 시인들의 산일된 시는 최치원의 것을 제외하면 모두 10수이다. 이 가운데 溫達이 지었다는 「幽居」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온달의 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온달은 고구려 영양왕 1년(서기 590년)에 죽은 사람으로 이 때는 아직 당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이어서 고체시가 아닌 근체시가 고구려에 유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한시의 발전은 최초에는 시경체인 4언에서 출발하여 5언 고시체로 발전되었으며 마침내 7언의 근체시가 유행되게 되었다. 이들 근체시의 유행은 우리 나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 근체시는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 온 지식인들에 의해서지만 그러나 현전하는 작품은 몇 수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몇 분들의 뒤를 이어 최치원에 이르면 신라에는 근체시의 전성기로 접어들게 된다. 최치원과 더불어 우리

한시사에 많은 공헌을 한 분은 최광유, 박인범, 최승우이다. 즉, 우리나라에 근체시가 유행하게 된 것은 중기가 아니라 신라 후기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고를 끝맺기로 한다. 심도있는 작품 분석과 같은 미진한 부분들의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